

“문제와 더불어 사는 인생”

요기 5장 7절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간혹 인생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고민하고 고통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행복한 인생은 문제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잘못된 등식 가운데 하나는 '행복한 인생이란 문제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문제없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줄 알기에 문제가 없기를 소원하고, 문제가 없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계속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는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쉽게 유혹에 무너져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늘 맑은 날이 사막을 만들 듯이, 문제없는 인생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기보다 오히려 우리를 타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그러한 길을 밟아 왔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 가장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가 고통을 당했을 때가 아니라 아무런 일이 없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문제가 많다. 내 가정이 문제가 있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이 문제가 있고, 내 직장에 문제가 있고, 나의 사업과 나의 생활에 너무나 문제가 많다. 사는 것이 고통스럽다, 괴롭다 그렇게 좌절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보다 먼저 살았던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나 일꾼들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은 받았지만 문제없이 산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인생에서 죄 없이 산 분은 한 분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에 예수님조차도 33년 동안 말할 수 없이 많은 문제에 부딪혔고 핍박을 받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문제없는 사람을 찾아 가려거든 공동묘지를 찾아가십시오. 그곳에 누워 있는 분들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 있는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절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다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한다 내 믿음이 약하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극복하고 그 문제로 우리의 삶에 양식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문제를 당하면 동분서주하지 말고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되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환난 때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여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으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때가 왔다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오면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날 기회가 온 것입니다. 홍해바다 사건이 안 일어났으면 홍해바다가 갈리지는 기적이 일어날 턱이 없습니다. 쓴 연못물을 만나지 않았으면 연못물을 달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광야에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곳에서 방황하지 않았으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만나로 먹이고 바위에서 물이 터져 마시게 하는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도 나타날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둘째로,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다가올 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내게 속한 운명적인 사건임으로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깨어져서 문제가 당하였을 때 내 스스로를 조명해 보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돌봐 주실 수 없지만 회개하고 깨어진 사람을 하나님이 돌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오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더욱 말씀을 읽고 믿음과 순종의 길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시 119:71)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법을 배우지도 아니하고 법에 관심도 없었습니다만 고난 당하고 난 다음에야 자아가 깨어지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문제에 대해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응답이 되어도 감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응답이 안되어도 고통스럽더라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놀라운 역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감사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사람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같이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딤후 4:4)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복되다는 것입니다.**

네번째로 내게 다가오는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당하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느냐? 왜 김씨, 박씨, 조씨도 안 당해야 하는데 왜 내가 이 문제를 당해야 하느냐? 그렇게 자꾸만 왜 내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고 여러분 문제가 다가오거든 이 문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긍정적인 자세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당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정하실 수가 있느냐고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코 앞의 일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영원을 두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행하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순식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까? 지금 안된 것이 나중에 될 수도 있고 지금 고통이 나중에 행복으로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환란 당할 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1) 창조적인 언어를 구사해야 한다. 2) 믿음의 말을 선포하라. 우리 입의 말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로써 죄를 사하셨고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도 말씀에 의해 그날로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건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인생에 실패했다고 해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눔의 시간

1. 당신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2. 당신은 문제가 생겼을 때 무조건 감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경험했습니까?
3. 문제로 인해 신앙생활을 회개한 적이 있다면 어떤 경우였는지 나누기 바랍니다.